

‘광주의 딸’ 이미림…KIA 클래식 6타차 압도적 우승

2년전 역전패 아쉬움 털고 20언더파…유소연 2위·박성현-허미정 4위

한국 LPGA 시즌 4승

광주 무등초와 문화중을 졸업한 이미림(27·NH투자증권)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IA 클래식(총상금 18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이미림은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의 아비아라 골프클럽(파72·659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이미림은 2014년 10월 레인우드 클래식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투어 통산 3승째를 거뒀다. 우승 상금은 27만 달러(약 3억원)다.

이미림은 2014년 8월 마이어 클래식과 같은 해 10월 레인우드 클래식을 연달아 제패한 뒤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다가 이번엔 ‘우승 감증’을 풀었다.

2년 전인 2015년 이 대회에서도 3라운드까지 선두를 질주하던 이미림은 마지막 날 크리스티 커(미국)에게 역전을 허용, 준우승한 바 있다. 이날 우승으로 2년 전 아쉬움을 달래 셈이다.

3라운드까지 허미정(대방건설)에게 1타 앞선 단독 1위였던 이미림은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5개를 잡아내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1번 홀(파4) 버디를 시작으로 9번 홀까



지 홀수 홀에서 매번 버디를 기록했다. 전반 9개 홀이 끝났을 때 2위와 간격을 5타 차로 벌렸다. 반면 허미정은 전반 9개 홀에서 버디와 보기 2개씩 맞바꾸며 제자리걸음에 그쳐 선두 경쟁을 이어가지 못했다.

유소연(메디힐)이 14번 홀(파3)에서 10m가 넘는 거리의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이미림을 4타 차로 추격했고 이어진 16번 홀(파4)에서도 한 타를 더 줄이며 선두와 간격을 3타 차까지 좁혔다. 그러나 이미림이 15번, 16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를 기록하며 5타 차로 달아나 사실상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이미림의 이날 20언더파는 2015년 커가 기록한 대회 최저타 우승 기록과 동물이 됐다.

이미림은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다소 긴장했지만 결국 우승을 해냈다”며 “2년 전 준우승할 때보다 공이 잘 맞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소연이 14언더파 274타로 오스틴 언스트(미국)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박성현(하나금융그룹)과 허미정이 12언더파 276타를 기록,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전인지는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더블보기가 나오는 바람에 10언더파 278타로 단독 10위에 올랐다.

이날 결과로 한국 선수들은 올해 열린 6개 대회에서 4승을 휩쓸었다.

2월 호주오픈 장하나와 혼다 타이랜드 양희영, 이달 초 HSBC 위민스 챔피언스 박인비에 이어 이미림이 한국 선수 4승째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이미림이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의 아비아라 골프클럽(파72·659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 18번홀 그린 위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챔피언 퍼트’ 하지 않은 아름다운 배려

“허미정 퍼팅 라인에 걸려” 마크 없이 돌아옴

이미림(27·NH투자증권)이 실력만큼이나 멋있는 필드 매너를 선보였다. 이미림은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의 아비아라 골프클럽(파72·6593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IA 클래식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골라내며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이미림은 공동 2위 선수에 무려 6타나 앞선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다.

이미림은 신인 시절이던 2014년 2승을 거둔 이후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다가 약 2년 6개월 만에 통산 3승째를 기록했다. 2년 반 동안 우승이 없었던 이미림이지만 마지막 우승 순간은 다소 밋밋했다.

2위에 6타나 앞서 있어 사실상 승부가 정해진 상황이었는데다 우승자의 ‘특권’ 가운데 하나인 ‘챔피언 퍼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미정(28)과 챔피언 조에서 경기한 이미림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10m가 넘는 먼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남겨뒀다. 반면 허미정은 그보다 짧은 거리에 공이 놓여 있었다. 따라서 버디 퍼트를 이미림이 먼저 했고 이 공은 홀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사실상 우승이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림은 공이 놓인 자리에 마크했다가 허미정의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갤러리들의 축하를 받으며 ‘챔피언 퍼트’를 할 수 있었다. 2년 6개월 만에 ‘오매불망’ 기다리던 우승이라 품을 좀

잡더라도 누구 하나 싫은 소리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미림은 곧바로 퍼터로 공을 톡 갖다 대 파로 돌아옴, ‘멋없는’ 마무리를 했다.

우승이 확정된 이후 동료 선수들의 축하를 받던 이미림은 ‘왜 챔피언 퍼트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에 “언니(퍼트) 라인에 걸려서…”라고 웃으며 답했다.

즉 우승을 멋있게 하려고 동반 플레이를 펼친 허미정에게 잠시 기다리게 하는 대신 빨리 경기를 마치는 배려심을 발휘한 셈이다.

골프계 관계자는 “원래 챔피언 퍼트가 우승자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관례지만 선수라면 누구나 해보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양보했다는 것은 이미림의 평소 인성을 집작하게 해주는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KIA, 더 높은 곳 보고 있다”

프로야구 미디어 데이 열려

프로야구 2017시즌 개막 분위기를 띄우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가 2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 홀에서 ‘2017 타이어뱅크 KBO 미디어데이&팬페스트’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10개 구단 사령탑과 각 팀 주장과 대표 선수 등이 참가해 올 시즌에 대한 각오 등을 언급했다.

‘디펜딩 챔피언’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한국시리즈 3연패 목표로 준비 많이 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 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가운데 9개 구단 감독들도 ‘우승과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언급했다.

KIA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게 된 김기태 감독도 “지난겨울 동안 준비 많이 했다. 주장 김주찬과 에이스 양현종 및 모든 선수가 작년보다 더 높은 곳과 좋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또 홈에서 멋진 포스트시즌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17시즌의 포부를 밝혔다.

가장 경계하는 팀에 대한 질문에는 “말하면 우리가 반대로 표적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우승을 반드시 하고 싶다. 그러나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마음은 다 간절할 것이다. 마음이 간절할 팀이 우승을 할 것이다. 9개 구단 모두 팀의 전력이 좋기 때문에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을 했다.

김주찬도 주장 자격으로 자리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었다.

김주찬은 “선수들 모두 캠프 때부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 팬들도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수들 모두 우승이라는 꿈을 향해 열심히 뛰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며 우승의 꿈을 밝혔다.

선수단 대표로 함께 한 양현종은 개인적인 바람과 후배 투수들의 활약에 기대감을 언급했다.

지난 시즌 승운이 따르지 않았던 양현종은 “내가 선발로 나왔을 때 타자들이 잘 쳐줬으면 좋겠다”는 진심 섞인 농담을 한 뒤 “한승혁, 홍건희가 잘해주면 좋은 성적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에 참석한 KIA 김주찬, 김기태 감독, 양현종(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좌)형우 형이 잘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현종은 “V11번째 우승이니까 우승을 하게 되면 (선수)11명이 축승회 때 걸그룹 댄스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우승

공약’도 밝혔다.

이 자리를 통해 프로야구 개막날인 오는 31일 전국 5개 구장 마운드에 오를 선발 투수들도 공개됐다. 10개 구단 모두 외국인 투수를 개막전 선발로 준비했다.

대구에서 시즌 첫 대결을 벌이게 되는 KIA와 삼성은 각각 ‘한국 2년 차’의 노련한 헛대 노예시와 ‘신입’ 자크 페트릭을 개막전 선발로 예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KLPGA 회장 취임



김상열<사진> 호반건설 회장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신임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회장은 27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LPGA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추대됐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2부 투어인 드림투어의 상금과 특전을 확대해 정규투어 기반을 탄탄히 하고, 은퇴 선수들의 활동 무대인 챔피언스 투어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KLPGA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에 힘 쓰고, 글로벌 투어가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외 공동주관 대회와 해외 선수 초청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4년간 KLPGA를 이끈다. 이로써 지난 1년간의 KLPGA 회장 공백기도 막을 내렸다.

/연합뉴스